

형통했더라고?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 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 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1~6]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19~23]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란 말은 전도할 때에 제일 많이 쓴 말이 아닐까요? 범사에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도용 메시지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지 다들 오래됐으니 복 많이 받으셨나요? 대답을 보니까 별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네요. 믿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복 받은 것이 없다면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해야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 어떡하죠?

복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죠. 불신자들은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훗날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복, 그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은 영원한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죽을 줄 알고도 죽는 길로 가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평안함을 포기하고, 먼 이역에서 생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출세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나요?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 출세, 명예, 재물은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또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잘 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함부로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거든 물어 보세요. 이렇게 출세했으니 행복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조금 조용해졌습시다만 한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없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도 멀쩡히 살아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출세했던 대통령도 있고, 돈이라는 돈은 다 모았을 재벌 회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연예인들도 참 많아요. 그들은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식육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공부도 그리 많이 한 것은 아닌데 그 옆에 포항 공대가 있습니다. 공대 옆에는 대학원 아파트가 있고 교수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기본이 석, 박사죠.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이 거기 와서 사

시거든요. 그 여 집사님이 옛날에 교수촌에서 살림을 봐주는 일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석, 박사, 대학교수가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겁니다.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하고, 집 나가기도 하고, 패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서 식육점을 열고 장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 분이 깨달은 복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높은 자리도 그렇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령 그 자리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즈음 국회 청문회 열리는데 거기 안 나갔더라면 땡땡 거리면서 잘 살 사람이 거기 나가는 바람에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물러난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왜 나갑니까? 일찍 사양하지. 사양이 쉽지 않나 봐요.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그렇게 매력이 있는 자리일 것 같으면 대통령 자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의 어떤 자리가 부럽지 않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더라.’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런 복도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실은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적응을 잘 합니까? 출세를 잘 하려면 무엇을 잘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되죠. 그리고 손도 잘 비벼야 돼요. 요령도 있어야 되고 아부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세를 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직장에서 출세 못하고 한 쪽 구석으로 밀릴 것 같지만 통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아직은 소수입니다. 들어온 지 겨우 100년 좀 더 됐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가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학기 초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조사를 해 보면, 옛날 얘기니까 한 반에 50명쯤 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나와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내신 90%정도 되는 아이들만 모이는 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그 학교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반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조사를 해 보니 1명이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저는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아니, 평균 10~15명인데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게 1명 있거나 없거나?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좋은 학교로는 많이 가는데, 이런 학교에는 잘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잘 이루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리며 살 것이라고 수 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살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땅에서 출세도 하고 재물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했지만 그러나 평생을 나그네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떨렁 순종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단이었고,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을까요?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반드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며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 하겠다.'고 하셨지만 야곱은 그 생애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고생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 내래요.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느라고 엄청 고생했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일 고생하신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그 간절한 소망을 깨끗이 덮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참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니까 무조건 때 한 번 써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이번에 새 차 한 번 뽑아버려, 그냥!" 저는 그런 분 얘기 들으면 몸이 오싹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일 저지르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좋은 믿음인지, 겁 없는 믿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때를 쓰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매를 둘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때를 써야 할 겁니다. 철이 없을 때는 때를 써도 괜찮죠. "너, 교회 다닌지 몇 년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를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네가 그런 식으로 때스단 말이지?" 그러면 매 맞을 가능성도 있죠.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되시면 때 쓰셔요.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할 본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매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했다는 말이 본문에 두 군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다짜고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형이 이 모양이나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죽이진 아니하고 종으로 팔아 버렸네요.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먼 나라로 팔려 간 거예요. 종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실감이 안 나시죠?

미국의 흑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써 놓은 책을 한 번 봤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깐 내용을 봐도 마음으로 딱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그림이 나를 너무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미국에 잡아와서 팔려 갈 때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자들은 그냥 팔 묶고 줄로 죽 묶어서 가는데, 남자 노예들은 앞의 노예와 뒤의 노예 사이에 목에 널빤지가 길게 끼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놈과 뒤에 가는 놈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놓은 그림이었어요.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가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세상에, 그 앞의 사람, 뒤의 사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널빤지를 끼워가지고 가는데, 그게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보여주는데 제 3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분들이 우리 조상들 이야기라고 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셉이 팔려갔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면, 아예 팔려가지를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설령 팔려 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빼들어서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래야 형통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더라.'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좋은 종이지만 가정 총무까지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가정 총무가 아무리 그 집에서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잖아요?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갔으니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면서 조금 올라와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요셉의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마음 아프게 안 보일수도 있지만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런 상황이냐는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시편 105편 17~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몸만 매인 게 아니라 영혼도 쇠사슬에 매였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절에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시절하고 요셉의 이 형편을 비교해 보세요. 요셉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려고 하니깐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정총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또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결국은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또 보통 감옥이 아니잖아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재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형통케 하시려면 죄수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정총무가 돼서 일이 잘 돼서 주인이 ‘넌 더 이상 종이야 아니야’ 하고 풀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나아졌나? 싶더니 다시 헤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수들 보는 일을 맡겼는데, 조금 올라온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형통이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형통이란 앞의 두 글자가 생략된 거죠. ‘만사형통’이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자면 만사형통인데,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치러갔는데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여요. 시험지에 답이 다 보이는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답을 다 체크했어요. 그래서 ‘수석!’ 여러분, 이런 게 만사형통입니까? 이런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칙이에요.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시장 조사를 얼마나 해야 되고, 좋은 재품을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가게 열어 봤더니 그냥 손님이 와글와글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신앙 아니예요, 믿음 아니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밀어 주세요.” 이런 것이 올바른 형통입니다. 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업을 다 해주시고,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반칙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사회가,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렇게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으로 보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유도선수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요. 일본에서 귀화하지 아니하고 한국 국적을 지닌 채 일본에서 거의 국가 대표선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일본 국가 대표로 안 뽑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국가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빨을 악 물었어요. ‘나는 판정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권투로 말하면 KO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도에서 무조건하고 한판으로 끝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별명이 ‘한판승의 사나이’입니다. 그래도 국가 대표로서 제대로 발탁이 안 됐나 봐요. 권디다 못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귀화했어요.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실력으로 일본 국가 대표선수가 된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 국가 대표로 와서 한국 대표선수와 싸워 이겼어요. 한국인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비난을 퍼 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 부었는지 모릅니다. “너, 일본 놈 맞나”고요.

그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은 격투기 대회에 나가는 추성훈 선수 이야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팠을지 모릅니다마는 그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회사일이든 가정일이든 심지어 집안일이라도 이런 예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세상 일이니까요.

요셉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형통케 하셨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고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던 그가 말할 수 없는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웬만하면 죽고 말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내라, 용기 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총무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낙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라고 보내는 이 신호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형통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버텨내요. 그러다 또 감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낮게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요셉아, 나 여기 있다, 힘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맞네요!' 이거 느낄 수 있도록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용기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설명하면 또 다르게 설명이 되겠지만 적어도 요셉에게는 이 말이 정확한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려면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바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지키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울 때 많죠? 그게 그렇게 안 풀어나가? 옆에서 쥐어박지 마세요. "비켜라, 임마.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더욱 안돼요. 아무리 답답해도 옆에서 지켜봐가면서 어쩌다가 조금 거들어 주면 좋까,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우리 모르게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장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 곁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가끔가끔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 주시면서 우리 곁에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네 힘으로 일어서라!'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왜 우리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냐? 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현실보다는 그 현실 너머, 혹은 그 현실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경기에서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중계방송을 보는 것, 이게 믿음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이겼단다." 소식을 들었어요. 한 번 볼까?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세 골 먹고, 경기 끝나려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0으로 지고 있어요. 분통이 터집니까, 억울합니까, 어떻겠어요? 분통 안 터져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고 있다?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겼지?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5분, 4분 안에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니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참 잘 될 거라, 어떻게 될 거라, 그런 확신이 되는 것,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될 거야. 이런 확신 보다는 어쨌든 내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무엇보다 믿고 갑니까? 하나님만 믿고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말씀하세요. 낙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야곱이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라면 이삭처럼 그렇게 큰 고생 안 했을지 몰라요. 이삭은 결혼할 때 자기가 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종이 정말 예쁜 색시를 구해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해다 줬어요. 반면에 야곱은 부인 하나 얻었다고 7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것도 자고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보이는 것이 도무지 없다 하더라도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해 있는 현실이 앞으로 어떤 복으로 변해 있을지 그런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었잖아요. 판원장 2명이 와서 꿈 해석을 해 주고 한 사람이 살아서 나갔어요. 그가 나를 기억해 주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몇 년쯤 기다리면 포기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몇 개월쯤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 같으면 몇 개월을 기다릴까요? 요셉에게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2년을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밑바닥에서 바로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돌보시기 위해서 ‘요셉아,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고통스러운 길이,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이 길이, 세월 지나서 뒤돌아보면 ‘아, 그 길이 꽃길이었구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그 길을 두벅두벅 갈 뿐입니다.

고생의 끝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를 하며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렇게 한 번 물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깝고 힘들어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고민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법입니다. 종이 무슨 고민을 하나요?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죠. 부목사가 고민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고민은 담임 목사가 머리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부목사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하면 그 다음 고민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알려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맡겨놓고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고민이 많고 힘이 드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요게 약간 문제란 거죠.

남편이 소중한니까? 남편이 벌어들인 돈이 중요합니까? 남편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직장 잃어버린 남편을 버리더라구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보다는 남편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얼 주시느냐보다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에 감격해 버리고, 여기에 기뻐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분이 무엇을 하실는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 정상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요 복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박국이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